

| 특집 |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의 방향과 과제

[기획의 말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의 현황 / 최경애 · 손지영
좌담 온라인 교육의 활용과 활성화 방안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온라인 교육 / 최경애]

기획의 말

바야흐로 기술 공학의 발전이 대학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집을 마련하였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교육의 역사 및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 교육을 도입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 올해로 8년째다. 웹의 상용화와 더불어 정부 주도로 시작된 1998년부터 2001년까지의 사이버 교육 시범 운영 사업에 참여한 것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게 된 계기였다. 그러나 이 경험은 서울대인에게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 주기도 했다. 원격 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던 대학들이 대거 참여한 사이버 대학 컨소시엄에서의 온라인 교육은 그것의 질과 운영 방법 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의 시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서울대학교는 2001년 봄부터 자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 웹클래스(Webclass)를 운영하였다. 웹클래스의 운영은 교수학습개발센터(CTL,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가 맡았다. 그러나 ‘웹클래스’는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학내의 인식 부족과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중앙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독립 시스템으로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안과 활용 상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비전 부재와 합의 도출의 실패로 인해 조직 및 예산 편성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했고 그 결과 기능상의 개선 없이 4년을 사용하다가 2005년 3월부터는 수업용 커뮤니티인 전산원의 e-Class 서비스로 이관되기에 이르른다.

한편 온라인 교육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개선에 관한 분야 역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아날로그 위주의 교수 매체 개발을 담당하던 이전의 IMC(Instructional Media Center)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새로 입주하였으며, 건물의 내부 시설을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 설비가 완성되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은 과거에 비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KT와 서울대학교 중앙전산원이 추진 중인 학내 유비쿼터스화 사업이 조만간 완료되면 온라인 교육을 위한 기술 및 시설 인프라는 상당 수준 구축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다소 힘든 실정이다. 기술 공학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인적 자원의 종류와 조직 구조가 달라져야 하지만 그런 인력을 재교육을 통해 길러 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조직 변화는 기술 공학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더디고 훨씬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이처럼 서울대학교 내에는 온라인 교육의 지원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기술 및 시설의 첨단화가 긍정적인 요소라면 조직과 인력, 문화적 인프라 등의 미비함은 이러한 기술과 시설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궁극적인 대학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학내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활용 방침, 인력의 재배치 및 구조 조정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이번 특집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온라인 교육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 교육 지원에 대한 학내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온라인 교육 지원을 살펴보았다. 5